



실마리 찾은 마운드

마운드는 맑음, 타선은 흐림이다.

없는 살림살이에서도 3승3패로 선방을 했던 지난 한 주였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뒷심 야구'로 짜릿한 끝내기 승과 연장전 승리도 가져왔다.

마운드의 양상은 지난해 초반과 비슷하다. KIA는 홀튼-송은범-양현종-임준섭-박경태로 2014 시즌을 열었다. 올 시즌은 양현종-힘바-스틴슨-임기준-문경찬이 투입되면서 양현종을 빼고는 선발진이 모두 바뀌었다.

부상과 부진은 비슷하다. 김진우는 올 시즌에도 역시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고, 지난해 좌완 박경태가 선발진에서 조기 탈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좌완 임기준도 기대와 다른 피칭으로 2군에서 공을 다 들었다.

지난해에 비해 흐름은 더 긍정적이다. 루키 문경찬도 힘을 키우기 위해 2군으로 이동했지만 선발진에 문제는 없다. 이를 악물고 재기를 준비한 서재웅이 5.1이닝 2실점으로 복귀전을 치렀고, 착실하게 시즌을 맞은 홍건희도 5이닝 1실점의 피칭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이들도 있다. 부상으로 캠프에서 일찍 짐을 싸면서 경

선발
서재웅 성공적 복귀전
홍건희 5이닝 1실점
불펜
21.2이닝 8실점 '분투'
호시탐탐
임준혁·김병현·한기주...
1군 복귀 시켜만 주요

쟁에서 뒤져졌던 한승혁도 김기태 감독이 염두에 두었던 선발자원, 등판 전날 부상으로 엔트리가 말소됐던 임준혁도 두 차례 2군 경기에서 나오면서 시동을 걸었다. '잠수함' 김병현도 2군 경기에서 컨디션 끌어올리고 있고, 임기준도 2군 두 번째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23일 처음 2군 경기에서 나와 5이닝을 소화한 한기주도 상무 원정



프로야구 중간순위 (4월 27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삼성	23	15	8	0	0.652	-
2 두산	22	14	8	0	0.636	0.5
3 롯데	23	13	10	0	0.565	2
4 SK	22	12	10	0	0.545	2.5
4 한화	22	12	10	0	0.545	2.5
6 넥센	23	12	11	0	0.522	3
6 LG	23	12	11	0	0.522	3
8 KIA	23	11	12	0	0.478	4
9 NC	22	9	13	0	0.409	5.5
10 KT	23	3	20	0	0.130	12

실타래 꼬인 방망이

부상

신종길·김원섭·김주찬 빠져

파워·스피드 동시에 약화

부진

'4번' 나지완 제발 깨어나라

전전긍긍

김다원·최용규 등 활약에도

부족한 경험·체력 저하 어쩌나

길에 올랐다. 이들은 선발과 불펜에서 모두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다.

불펜도 큰 문제는 없다. 지난 6경기에서 불펜진은 21.2이닝 8실점(3.38)의 분투로 뒷심 싸움에 힘을 보탤었다. 불펜 싸움이 이뤄지면서 지더라도 쉽게 지지 않고 있다.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마운드와 달리 타선은 고

민이 많다. 안치홍-김선빈의 군입대로 인한 전력 누수 속 부상으로 아직 베스트 라인업이 한 번도 꾸려지지 않았다. 시즌 출발에 앞서 신종길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파워와 스피드가 동시에 약화됐다. 김원섭, 박준태에 이어 전부상에 시달리던 김주찬도 2군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김다원·이호신의 재발견과 김호령이라는 깜짝 스타 발굴이 이뤄졌고, 내야에서도 최용규-강한솔이 기대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젊은 선수층이 발목을 잡는다.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경기가 계속되면서 처음 주전 역할을 맡은 이들의 집중력과 체력 저하가 고민이다. 결정적인 순간의 실수가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여기에 4번 타자 나지완의 끝을 알 수 없는 부진으로 시원하게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서 필 홀로 중심을 지키는 모양새다. 대체 자원으로 마땅치 않다. 부상에서 벗어나 2군 경기에 뛰고 있는 내야수 김주형과 김민우 정도가 그나마 경험이 있는 선수다.

KIA는 이번 주 가장 뜨거운 팀 한화, 호스를 가다듬고 있는 SK와 홈 6연전을 치른다. 타선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게 KIA의 가장 큰 숙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MLB 한국 선수는 지금

시동 LA 류현진, 불펜 피칭...5월말까지 복귀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어깨 부상 이후 처음으로 불펜에서 공을 던졌다.

MLB닷컴과 CBS스포츠는 류현진이 2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팻코파크에서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고 전했다. 류현진은 작구만 20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진이 불펜 피칭을 소화한 것은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한 이후 처음이다.

돈 매닝리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던졌다. 잠시도 쉬지 않았던 선수 같았다. 이제는 어깨 힘을 키우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류현진은 어떤 통증도 느끼지 않았고,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며 "류현진의 복귀를 위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현진은 오는 29일 한 차례 더 불펜에서 공을 던질 예정이지만 마운드 복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류현진의 재활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5월 말까지는 시즌 데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CBS스포츠는 전했다.

/연합뉴스

침묵 텍사스 추신수, 26타수 1안타 그쳐

슬럼프에 빠진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5경기 연속 침묵했다.

추신수는 26일(현지시간)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방문경기에서 7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볼넷 1개와 몸에 맞는 볼 1개로 두 차례 1루를 밟았을 뿐 나머지 타석에서는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21일 애리조나와의 경기부터 안타를 치지 못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104(48타수 5안타)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벌어진 원정 8연전에서 26타수 1안타로 극심한 부진을 겪어 우려를 안겼다.

2회 1사 1루의 첫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에인절스 좌완 선발 투수 엑토르 산티아고의 싱커를 공략했으나 평범한 내야 뜬공에 머물렀다. 하지만 상대 유격수 에릭 아이바가 다 잡았다가 마지막에 놓치면서 추신수는 1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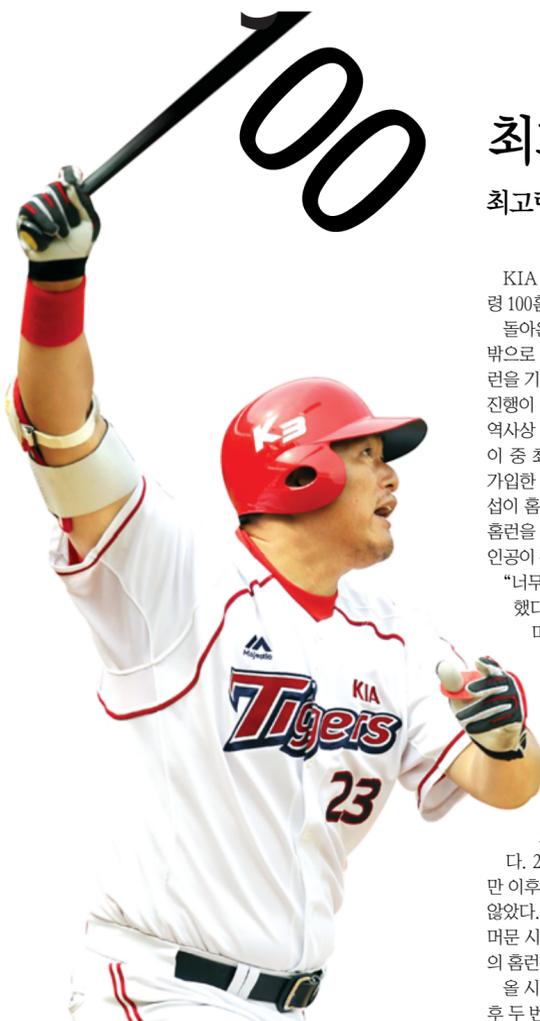
에 나갔다. 공식 기록은 아이바의 실책이다.

2-0으로 달아난 3회 2사 1·2루 두 번째 타석에는 볼넷을 얻었다. 5회 2사 1·2루에서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뒤 8회 바뀐 투수 마이크 모린의 빠른 볼에 맞고 1루에 걸려나갔다. 연장 10회에는 3구 삼진, 연장 11회에는 2루수 땅볼로 잡혔다.

추신수는 수비에서도 아쉬운 장면을 두 차례 연출했다. 4회 C.J 크론의 우중간 펜스를 원바운드로 때리는 2루타성 타구를 수비하다가 더듬으면서 타자를 3루까지 보낸 데 이어 7회에는 자니 지아보넬라의 우선상에 떨어지는 안타를 쫓아갔으나 잡지 못했다. 타구는 우선상 안쪽에 떨어진 다음 펜스를 넘어가는 인정 2루타가 됐다.

팀은 연장 11회 5-4로 재역전승을 거두며 3연패에서 벗어났다.

/연합뉴스



최희섭, 홈런 하나 더 치면...

최고령 100 홈런·70번째 100 홈런 주인공

KIA 타이거즈의 '빅쇼이' 최희섭이 최고령 100홈런을 준비하고 있다.

돌아온 최희섭은 올 시즌 4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넘기면서 한국 무대에서 99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4월3일 한화의 최진행이 100번째 아치를 그리면서 프로야구 역사상 100홈런을 채운 선수는 모두 69명. 이 중 최고령은 2011년 9월18일 100클럽에 가입한 가르시아(35세10개월20일)다. 최희섭이 홈런을 하나 추가한다면 70번째로 100홈런을 때린 선수이자 최고령 100홈런의 주인공이 된다.

"너무 늦어졌다. 더 많은 홈런을 때려내야 했다"가 100홈런을 기다리는 최희섭의 마음이다.

KIA도 최희섭의 시원한 홈런포를 기다리고 있다. 2009년 최희섭이 김상현과 홈런왕 자리를 놓고 집안 싸움을 벌이면서 KIA는 V10을 향한 질주를 할 수 있었다.

최희섭은 이해 33개의 홈런으로 한국 복귀 후 최다 홈런을 기록했다. 2010년에도 21개의 홈런을 터트렸지만 이후 '빅쇼이'의 위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 부상과 부진 등으로 그라운드 밖에 머문 시간이 길어지면서 최근 3년간 최희섭의 홈런은 27개에 불과했다.

올 시즌 홈런 페이스는 나쁘지 않다. 복귀 후 두 번째 경기 만에 마수결이 홈런을 날렸

던 그는 4월3일 kt와의 경기에서는 멀티홈런을 만들면서 부활을 알렸다. NC 테이츠의 사이클링 히트가 완성됐던 9일에는 최희섭이 먼저 홈런포를 날리며 선제 공격을 했었고, 넥센 홈런 공세에 문경찬이 일찍 무너졌던 4월19일에는 0-13으로 뒤진 7회 우측 담장을 넘기며 답답한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에게 그나마 시원한 장면 하나를 선물했다.

100홈런에 남은 하나. 최근 많은 타석에서 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다. 허리가 좋지 않은 최희섭은 최근에는 대타로 원으로 투입되고 있다. 세 차례 대타로 나와 볼넷과 안타 2개로 3타점을 만들었으니 자신의 임무를 100% 완수한 셈이다. 그래도 역시 최희섭에게 바라는 것은 시원한 한방이다.

최희섭 역시 홈런이 그립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최희섭이다. 김기태 감독이 완벽한 몸 상태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어 가도록 하고 있지만 최희섭은 방망이를 놓지 않고 있다. 경기 중 덕아웃에서 열심히 방망이를 휘두르는 최희섭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두산 원정경기가 열린 지난 26일 훈련 시간에는 조용히 방망이를 들고 그라운드에 나갔다가 "감독님에게 걸렸다. 높은 티를 치고 왔다"고 슬며시 웃으면서 돌아오기도 했다.

2015시즌은 보너스 야구 인생이라는 최희섭. 그에게 다음 홈런은 더 특별한 의미의 홈런이 될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